

**“거룩한 백성”
(A Holy People)**



반가운 비가 내려요, 곡우 穀雨

곡우는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로

양력 4월 20일 또는 21일이예요.

곡우란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잘 자란다는 뜻이지요.

이때에는 못자리*에 쓸 볍씨를 담가 둔답니다.

옛날에는 볍씨를 매우 소중히 여겨서 못된 사람에게는 보여 주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곡우에는 산다래나무,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에서 나오는 수액을 약수로 먹었어요.

또 이때 서해에서 잡히는 조기를 '곡우살이'라고 하는데 크기는 작지만 연하고 맛이 좋아 즐겨 먹었어요.

*못자리 : 볍씨를 부려 모를 기르는 곳



24절기중의 하나인

곡우(穀雨)

“봄비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



뉴스핌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취한 나라들**





Reuters

1. 성경은 항상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J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II.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FAKE

REAL

VS



‘좋은 부모’란? 부모와 자녀에게 물었더니...



(신 7:2)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 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Dt 7:2) and when the LORD your God gives them over to you, and you defeat them, then you must devote them to complete destruction. You shall make no covenant with them and show no mercy to them.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동물들의 고발장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 쉬고 있고, 보호된 무리로 생활하며
이웃과 어울리고 싶어요. 흙에 발을 비벼주실래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알 낚는 기계 취급하며 오만하게 말하니까
에양 글! 수봉이 그림! 김중서 글수

원고석



프린들어린이



STAY
at **HOME**
ORDER





TH
61
L
2
S
1

America will never be destroyed from the outside. If we falter and lose our freedoms it will be because we DESTROYED OURSELVES !!!

IF TYRANNY &
COMES TO THIS
BE IN THE
OF FIGHTING
& FOREIGN

(신 7:5)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Dt 7:5) But thus shall you deal with them: you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and dash in pieces their pillars and chop down their Asherim and burn their carved images with fire.

III.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요.

(신 7:6)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Dt 7:6) "For you ar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you to be a people for his treasured possession, out of all the peoples who are on the face of the earth.

(신 7:7) 주님께서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Dt 7:7) It was not because you were more in number than any other people that the LORD set his love on you and chose you, for you were the fewest of all peoples,

(신 7:8) 그런데도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주신 것입니다.

(Dt 7:8) but it is because the LORD loves you and is keeping the oath that he swore to your fathers, that the LORD has brought you out with a mighty hand and redeemed you from the house of slavery, from the hand of Pharaoh king of Egypt.

(신 7:9)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Dt 7:9) Know therefore that the LORD your God is God, the faithful God who keeps covenant and steadfast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to a thousand generations,